

트래블



특! 특! 봄을 알리는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남녘에서부터 들려온다. 살랑대는 바람은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 봄맞이 국내 꽃 여행도 좋지만 30~50만원대에 크루즈 해의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계획을 세워봐도 될 듯 싶다. 후쿠오카를 통해 규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 인근 온천여행과 골프여행을 2회에 걸쳐 실는다.

1 크루즈로 떠나는 日本-오이타현

오이타현에 가기 위해서는 후쿠오카로 가야 한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 후 부산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2시간 카멜리아 호를 타고 후쿠오카로 출발한다. 하룻밤의 선내에서 숙박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가족·동료·연인·이웃들과 함께 여행을 나섰다. 설레임과 함께 약간 흔들리는 선내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살짝 선실에서 빠져나와 북극성을 찾아보고, 주변의 아름다운 별들과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낭만적이다.

선내에는 공동 목욕탕과 면세점, 레스토랑이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목욕은 이번 여행에 대한 설레임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유황산의 연기가 저 멀리 보인다..... 많은 이들이 말하듯 이곳 한나고원은 정말 낭만적 그리움이 깃들여 있다. 포근하고 밝고 아득한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다.”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 규슈 오이타현 고코노에정(町)의 풍광을 묘사한 글이다.

일본 규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大分縣)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 ‘축복의 땅’이다. 고원의 장엄함과 아름다운 해안, 그리고 최고수질을 자랑하는 온천 등을 감상, 체험할 수 있다.

현청 소재지인 오이타시(大分市)는 그리 멀지 않다. 벳푸(別府)와 후쿠오카(福岡), 나가사키(長崎) 등 규슈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오이타현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매우 높아 오이타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의 표지판은 한글표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항직원 대부분이 한국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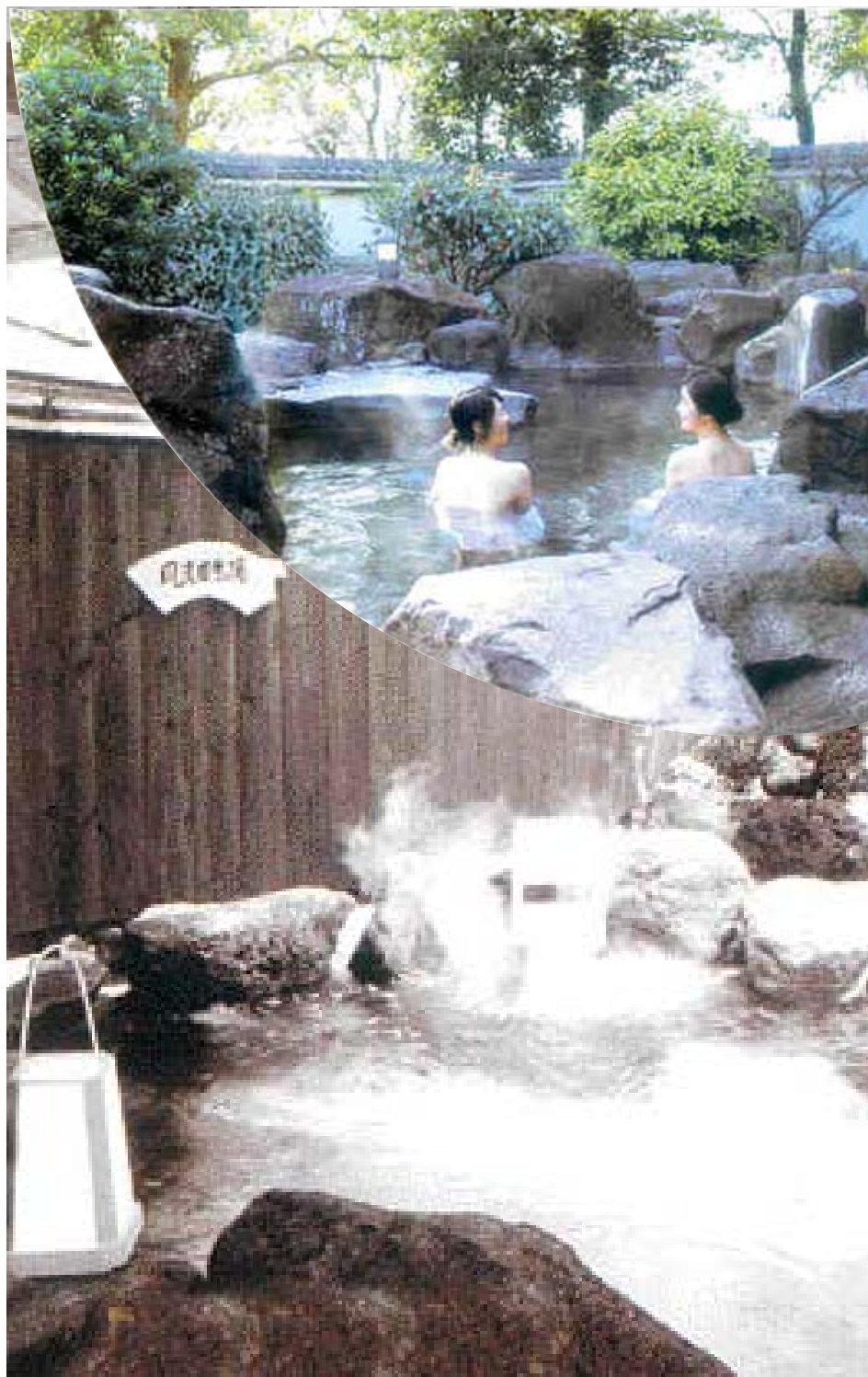
오이타, 벳푸, 후쿠오카, 유후인 등 내 주요 관광도시의 표지판도 한국어 표기를 함께 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에는 한글 안내책자가 준비되어 있어 불편이 없다.

오이타현은 산과 바다, 고원 그리고 온천이 어우러진 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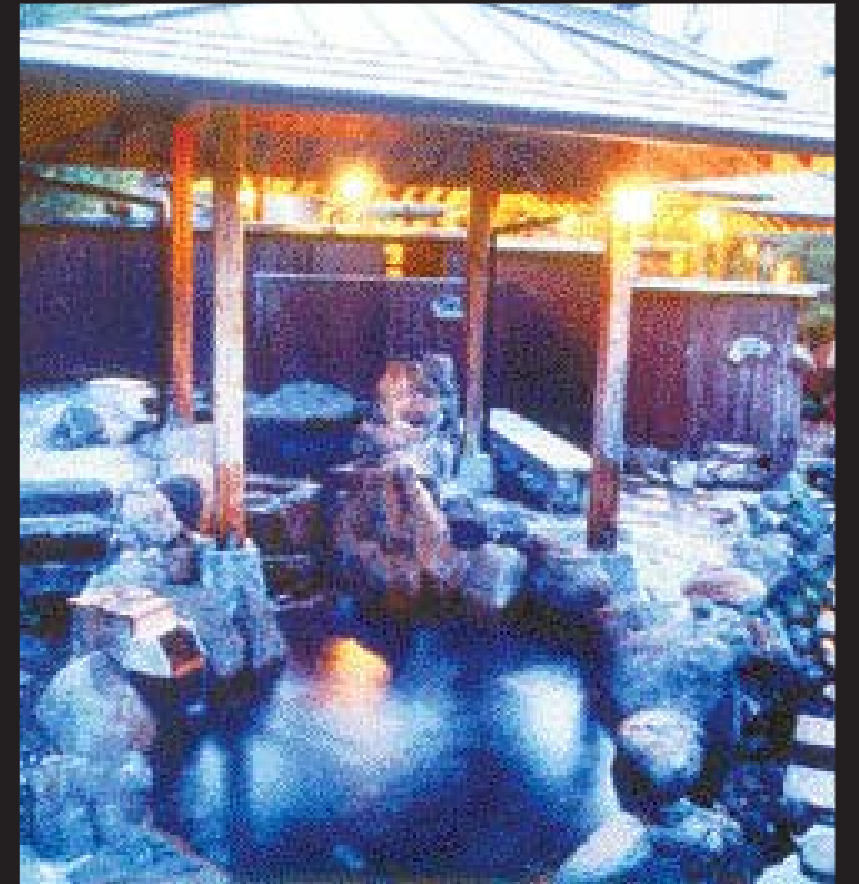
고대부터 이 온천의 대부분은 현의 중앙부를 거의 동서로 나란히 위치한 쓰루미·유포·구주 등 새로운 화산을 만들어 낸 지하의 마그마로부터 열과 화학 성분의 근원인 화산성의 온천이다.

오이타현의 온천은 원천의 약 85%가 42℃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며, 온천수의 수질이 다양하고 온천 수량의 방대함은 물론이고, 고온의 온천이 많다.

특히 구주산(九重連山)에 자리잡은 스키 유온천(筋肉温泉)은 이름 그대로 심줄에 관한 병에 잘 듣는다고 유명한 온천이다. 이곳에서 가장 큰 온천은 100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키유온천이다.



溫泉 마을까지 말끔히



스지유 온천마을에서 가장 큰 일본식 전통호텔인 '유우테이 호텔'의 온천 풍경. 1·2층에 남·여, 혼탕 등 모두 5곳의 온천이 있다.



스지유 온천마을입구에 30여개에 달하는 여관을 소개하는 간판이 인상적이다.

가족·연인과 함께 봄 나들이...스지유 마을 6곳 온천 자유롭게 이용

해발 1천m가 넘는 깊은 산속에 있으며 온천 요양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온천 마을에는 30개의 일본식 전통 여관이 있으며 '유우테이 호텔'은 이 온천마을에서 가장 큰 호텔이다. 1층과 2층에 남·여 온천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근육에 좋다고 해서인지 몸을 담고 있으면 나른해 진다는 느낌보다 전신에 기력이 충만해진다. 온천 후에는 2층에 있는 일본 전통분위기를 살린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보자. 호텔 입구에는 일

본 전역에 유명한 하얀색 그레이트 피레니즈종 '엔젤'이 손님을 맞는데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30개 여관에서 숙박하는 손님들은 스키유 마을에 있는 6곳의 온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돼 있으며 혼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유카타(浴衣)라는 일본 전통 의복을 입고 온천을 이용하면 된다.

조이트래블에서는 구주산에 위치한 '야마나미 콘도'에서 숙박을 하고 2회의 온천욕과 구마모토 성,태제부 만천공, 오호리 공원, 원

숭이 공원등을 둘러볼수 있는 33만9천원의 상품이 인기가 있다. 또 유후인-벳푸관광과 스키유온천에서 피로를 풀 후 구주산의 현수교와 세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화구인 아소산 나카다케 화산 분화구, 쿠마모토성, 태제부천만공을 둘러보는데 하루는 일본의 전통온천을 경험하고 한번은 최고급 호텔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은 47만9천원이다. 문의, 조이트래블 062-234-3222.

/오이타현=글·사진 최재희기자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udeungsan Munbinjeongsa' (무등산 문빈정사)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Napgol-dang' (napgol-dang) even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event's location and timing.

Advertisement for 'Daedong Real Estate' (대지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A+ Eaplus Real Estate'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al estate agent.

Advertisement for 'Hanil Land Sales' (한일지도판매(주))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al estate agent.